

“시민회관을 4·19 기념관으로” 손재홍 “평화공원 후박나무 절반고사” 이춘문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광주시의원들은 27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에 광주 4·19 혁명 재조명 기념사업 추진과 상무지구 평화광장 후박나무 고사(枯死) 문제, 5·18 유적지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질타했다.

광주시의회 손재홍(민주·동구 2) 의원은 이날 “광주 4·19 혁명 재조명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광주시민회관을 4·19 혁명 기념관으로 조성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4·19 혁명사에 있어 광주가 3대 진원지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 왔다”라며 “1960년 3월15일 오후 12시45분께 광주시민 1000여 명이 부정선거에 항거해 분연히 일어났고, 이 시간대는 마산시위보다 3시간이나 앞선 것”이라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광주시민들은 이후 매일 광주공원에 운집해 독재정권을 규탄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며

“현재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광주 시민회관을 4·19혁명 기념관으로, 광주공원을 4·19 기념공원으로 명명하고 유실돼가는 4·19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자료관, 전시관, 봉안각, 청소년 교육장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문(민주·서구 1) 의원은 “광주시가 청사 앞과 평화공원 조경공사를 하면서 난대성 수종인 후박나무 38그루를 식재했으나 지난 겨울 추위에 절반 이상이 고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난대성 수종인 후박나무가 광주 기후에 적합하

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1그루당 200만~300만원대인 수령 20~30년의 후박나무를 심었다”라며 “고가의 수종에 대해 겨울철 보온조치 등 수목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조경업체의 유지관리기간이 올해 8월에 끝나고 하자 보수기간도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공원 내 모든 수목상태를 점검하고 생육조건이 맞지 않은 품종은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애(민주·비례) 의원과 강민이(민주·서구 4) 의원은 이날 5·18 유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조속한 착수와 5·18 사적지 제26호인 505 보안대 옛터 보존과 활용방안을 촉구했다.

진선기(민주·북구 1) 의원과 조오섭(민주·북구 2) 의원은 각각 긴급 현안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호남고속철도(KTX) 광주역 진입 방안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KTX 정차역 문제를 송정역, 광주역으로 일원화·이원화 편 가르기가 아닌 수요자 중심과 도심활성화 원칙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혁신도시, 공공기관 외에 기업·연구소도 와야”

이건철 전발연 실장

전남도는 26일 동신대 산학기술협력관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란 주제로 혁신도시 포럼을 개최했다.

아날 포럼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과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전문가 그룹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건철 전발연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혁신도시는 지방경제 활성화

의 핵심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마지막 보루”라며 “이전기관 및 관련 기업 종사자와 가족들이 등 떠밀려 오는 게 아닌, 기꺼이 이주하고 싶은 명품도시로 건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혁신도시가 산업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만 6000여 명 규모에 불과한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공공기관이 먼저 이전한 뒤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불러들이고 지역 대학들이 이를 기관과 어떻게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

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공공기관의 관련 기업들에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투자유치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 대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중앙정부는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약속’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실천과제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통령 권한 분산·축소해야”

이재오 특임장관 광주서 개헌 특강



이재오 특임장관은 27일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권을 누가 잡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리 시대의 개헌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기는 사람은 권력을 모두 갖고 진 사람은 다 잃는다. 선거를 할 때마다 지역갈등, 계층·세대간 갈등, 이념갈등까지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임 중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기 때문에 5년 하고 나면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며 “통일, 국방 등 큰 일에 대해 책임은 지는 권력을 나누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야당 때는 개헌을 반대했다”면서 “여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을 가까이 모셔보니 이렇게 해서 나라가 발전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개인 소득 3만불 이상 되는 나라는 모두 권력이 분산됐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행정사무조사 확정

2008년~이달말까지 인사·구매 상황 점검

광주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이뤄진 시 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일선학교 등의 인사와 계약, 구매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는 학교회계 결산서와 목적사업별 집행 실적,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체 학교 수의 계약 현황과 지난 2009년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납품 등 각종 물품 구매 과정을 조

사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65일간이다.

조사위원회는 정희근, 김선호, 정현애, 진선기, 서정성 등 교육위원 5명과 조호권, 장병문, 홍인화, 조오섭, 전주연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엔 정희근 의원이, 간사는 서정성, 전주연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는 오는 7월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산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통한 표결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워너브라더스 세트장 조명등 광주 LED로 교체

강운태 시장 美서 이틀째 투자유치 활동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중인 강운태 광주시장 등 투자유치단은 현지 체류 이틀째인 26일(현지시간)에도 워너브라더스 영화사와 코닥극장, 영화필름 수정업체인 SSI사 등을 찾아 수출 상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강 시장은 이날 미국 최대 규모의 영화세트장을 보유하고 있는 워너브라더스 영화사를 방문, 앨런 혼 대표와 만나 영화촬영 세트장의 조명등을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LED제품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며 현재 사용중인 조명등 일부를 조만간 지역생산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강 시장은 이어 코닥극장을 찾아가 극장 내부를 둘러본 뒤 리처드 대표와 조명등을 광주에서 생산된 친환경·고효율 LED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리처드 대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늦게 방문한 SSI사에서는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2D, 3D영화 최종 수정작업 물량 가운데 상당부분을 광주로 넘겨주는 방안이 다뤄졌다. 테리 워커 대표는 광주복합영상문화관 등지에 합작회사를 설립, 광주에 영화수정 물량과 관련 기기를 지원키로 하는 등 을 상반기 중 광주 투자 유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방문한 비버리소프센터 레이먼 쉐넬 대표는 소규모 전체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2014년까지 광주지역 LED생산 업체와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투자유치단은 또 로스앤젤레스 코리안타운 내 기업들 가운데 광주에

투자유치를 고려하고 있거나 투자유치가 가능한 20여 개 업체 대표 및 관계자와 만찬을 함께하고 광주의 기업 여건과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기존 조명등을 광주산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역 광산업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영화의 메카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필름을 수정하는 작업은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문화산업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엔 LED분야 단일품목으로는 세계 최대인 52억5000만달러(5조 7000억원) 규모의 수출협약을 미국과 체결하는 쾌거를 거뒀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영환 “광주, 신재생에너지 거점돼야”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7일 “MB 정부가 호남권 선도산업인 광기반 융합 분야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다른 지역에 분산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광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김 의원은

이날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가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의 거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주를 치과의 도시, 한국의 ‘소프론(헝가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광주가 아시아의 대표 치과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당신과 SK텔레콤이 나누는 「꿈의 대화」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진 당신과
앞선 기술을 가진 우리가 만나면
새로운 위치기반 서비스, 처음 보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미래의 꿈들이 더 많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우리의 기반기술 노하우를 당신에게 얹는다
우리가 서로의 꿈을 주고받으며 함께 만들어갈
상생의 내일을 기대하며

모두에게 +α 되는 세상을 만듭니다



기행하고 공유하여 다함께 상생을 이루는 ICT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SK텔레콤 [상생혁신센터]
SK텔레콤의 7대 플랫폼 기반기술(위젯·메시징·모바일광고·관련소유물·소셜 네트워크·커머스·B2B7번을 나눌 이터에서, 가장 먼저
개봉되는 위치기반(T-맵과 메시징(SMS/MMS)기반으로 당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보십시오. http://oic.istore.co.kr